

스토리의 개요 :

인하대학교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학교 호수에서 시체를 발견하여 심각한 시체 훼손으로 수사에 난항.

피해자:

김인하군

용의자 :

학생회장, 졸업생, 동아리 선배, 생물학 교수, 전애인(과CC)

단서를 가지고 있는 NPC :

남춘성 교수님, 김성건 교수님, 인덕이(인덕이는 우리가 로봇이라는 전제하로 진행 하고 있으니까,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수단을 모을 때 “로봇 번역기” 아이템을 얻는 방안. 처음에 인덕이한테 말 걸때는 동물의 숲 같은 목소리로 들렸다면, 로봇 번역기를 수집한 후 말 걸 때는 사람말로 들리는 걸로 해도 좋을 듯!)

실제 범인 :

학생회장

사건 당일 용의자들의 동선 :

학생회장 : 학생회장은 사건 당일에 설사가 있어, 동선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가족과 같이 먹는 아침 식사에 상한 김밥이 있어 설사가 발생하였다고 한다.(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알리바이를 찾고 싶다면, 학생회장 핸드폰에서 가족과의 문자 기록을 찾는 방안으로 하면 될 듯. 이로 인해서 추리에 혼동을 주는 것) 학생회장 말로는 화장실↔강의실을 반복하여 건물을 나갈 일이 없다고 하였지만 누군가는 그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졸업생 : 졸업생은 재학 당시 자신이 까먹고 사물함에 놓고 온 보조 배터리를 가져오기 위하여, 사건 당일 학교에 방문하였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한 날 복도에서 복학생 친구 B군과 이야기를 하다가 사건 현장으로 이면길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 후로 다시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아리 선배 : 동아리 선배는 사건 당일 음악실에서 불투명한 술자리를 열었다. 그 자리의 참석자들은 누군가 그들 중 하나가 시체를 호수에 던졌다고 진술하지만, 그 행위를 행한자는 포착되지 않았으며, 다들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정확한 증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생물학 교수 : 학생과 가까운 생물학 교수는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사건 당일 생물학 교수는 담당 지도 학생들과 인하대 근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를 부르기 위해 주차장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요일 밤으로 인하여, 대리 기사 배차가 늦어진 걸로 추정된다. 그로 인하여 주차장에서 대리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도중, 누군가가 호수에 사람을 내려둔 걸로 보았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학생회장과 악물 관련 비밀스러운 연락을 주고 받아 의심을 받았지만, 사건에 관련된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했다.

전애인 D양: 사건이 발생한 학생의 전애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전애인은 최근에 인하군과 이별한 사실이 뒷받침되어 의심을 받는다. 헤어지기 하루 전에 복도에서 두 사람이 크게 싸운 것을 동기들이 목격하였다고 한다. 심지어 그녀의 가방 안에서 인하군이 다른 여자랑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살인도구 : 약물(악플루토신)

- 이 가상의 독송성 약물은 사람의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신체 기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도로 독성이며, 적절한 용량이 아니라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해당 살인도구를 얻을 수 있는 동기 : 학생회장은 생물학 수업을 듣고 있어, 강의실 내 금고에 있는 독성약물을 훔쳤다. 마침, 생물학 교수는 학생회장이 훔친 장면을 목격하여 이를 근거로 학생회장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학생회장과 생물학 교수 사이에 비밀스러운 문자가 오고 간 것이다.

살인동기 :

평소 인하군은 과탐에다가 반반하고 잘생긴 외모에 매너가 좋은 성격까지 겸비하고 있어, 동기들과 후배 및 선배 사이에도 인기가 많았다. 차기 학생회장은 다들 인하군이 출마할 것을 응원하였다. 그로 인하여, 성공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많은 학생회장은 이를 질투로 느끼기 시작하였고, 질투가 곧 증오로 변하기 시작하였다.

용의자들이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

학생회장 :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사건 당일 그가 사건 현장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그로 인하여 용의자로 지목 됐으나,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항상 유지하였기 때문에 용의자로만 자연스럽게 배제되고 있다. (하나, 소문의 유포자는 찾을 수 없음-소문의 유포자 : 인덕이로 하면 좋을 듯, 지나가는 누군가가 인덕이 근처에 있는 로봇번역기를 발견하고 인덕이 말을 들었는데 귀신인 줄 알고 무서워서 아무한테도 당당하게 말하지 못 한...)

졸업생 : 인하군의 선배로, 친밀한 사이는 아니다. 하지만 가끔 인사만 하는 사이이며 용의자로 지목된 이유는 사건 당일 현장으로 이면길 통해 빠져나간 장면이 CCTV 화면에 촬영됐기 때문이다.

동아리 선배 : 같은 동아리인 선배의 미성숙한 행동으로 인하여 FM 성격의 인하군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다. 사건 당일에도 동아리실에서 다른 동아리원들과 술파티를 연 것에 대해 인하군은 동아리부원으로서 항의를 하였고, 선배를 지적한 것에 대해 마땅치 않았는지 인하군과 말싸움이 일어났다. 다소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 되기 전에 동아리 선배는 "아 진짜 죽여 버릴까보다."라는 말을 하였고, 동아리실에는 있는 사람들은 이 말을 다 듣게 되어 용의자로 지목당했다.

생물학 교수 : 생물학 교수는 평소 행실이 바른 인하군을 많이 애정하였다. 그로 인하여, 인하군에게 자신의 조교가 되라는 말을 항상 하였다. 하지만, 인하군은 조교로서 성장하는 것 보다는 대기업에 가고 싶다는 꿈이 커 최근에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로 인하여 교수의 태도는 변하였고, 인하군을 아니꼽게 보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이 자자하게 돌면서 이로 인하여 용의자로 지목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학생회장과 생물학 교수간의 은밀한 문자를 나눈 것이 용의자로 지목당한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문자 내용- 인하군의 뒷담을 까는 내용 및 약물 관련 내용)

전애인 D양 : 인하군과 전애인 D양은 최근 이별을 하였다. 하지만, 이별 전 복도에서 큰 소리로 싸움이 났고 그로 인하여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또한, 전애인 D양의 가방 안에서 인하군이 다른 여자와 있는 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평소 전애인 D양은 "바람 피는 사람들은 진짜 사회의 악이야"라는 소리를 자주하였다.(전애인 D양은 집착과 질투가 심해 인하군이 다른 여자와 있는 것도 바람이라고 평소 생각하는 편)